논어 14편 헌문 10장 · 원문·풀이

或問子產，子曰：「惠人也。」問子西。曰：「彼哉彼哉！」問管仲。曰：「人也，奪伯氏駢邑三百，飯疏食，沒齒，無怨言。」

독음 · 혹문자산 자왈 혜인야 문자서 왈 피재피재 문관중 왈 인야 탈백씨병읍삼백 반소사 몰치 무원언

쉬운 풀이(요약) · 자산은 은혜로운 사람이라 평했다. 관중은 백씨의 땅을 빼앗았지만 백씨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을 만큼 정당한 일을 했다고 보았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或 혹 혹 혹 / 問 물을 문 문 / 子 아들 자 / 產 낳을 산

曰 가로 왈 / 惠 은혜 혜 혜 / 人 사람 인 / 也 어조사 야

西 서녘 서 서 / 彼 저 피 피 / 哉 비로소 재 재 / 管 피리 관 관

仲 버금 중 중 / 奪 빼앗을 탈 탈 / 伯 맏 백 백 / 氏 성 씨 씨

駢 나란히 할 병 병 / 邑 고을 읍 읍 / 三 석 삼 삼 / 百 일백 백 백

飯 밥 반 반 / 疏 뚫릴 소 소 / 食 밥 식 식 / 沒 가라 앉을 몰 몰

齒 이 치 치 / 無 없을 무 무 / 怨 원망할 원 원 / 言 말씀 언 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